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4123호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뉴스]
KAL이 이륙시킨 국민연금 주주권 '나, 떨고 있니?
02

Economy

코스피 2107.06 (+0.96)
코스닥 686.35 (-7.03)
금리(국고채 3년) 1.80 (-0.01)
환율(원·달러) 1122.50 (+2.40)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광역시 남구 덕양 제3공장을 방문, 공장 관계자에게 수소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새해 첫 지역경제투어

불 꺼지지 않는 울산서 '수소경제' 로드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새해 첫 '지역경제 투어' 장소로 울산광역시를 택했다. 〈관련기사 2·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과 '울산 미래 에너지 전략 발표' 행사를 진행하면서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수소경제란 화석연료인 석유를 수소로 대체하는 미래경제를 말한다. 또 수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매우 적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서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는 울산의 다른 이름으로 울산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갈 때 우리 경제도 뛰었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자 울산경제의 새 희망인 수소경제를 말하고자 한다.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핵심부품 99% 국산화를 이뤘다. 한 번 충전으로 600㎞까지 달린다.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나라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한다"며 "오는 2030년 수소차·연료전지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 중심에 울산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밝힌 이유에 대해선 "울산은 석유화학 산업 관련 1억 4000만 배럴의 액체화물 저장시설 및 12만㎥ 압축가스 저장시설을 보유하는 등 수소 생산·저장에 특화됐다"며 "(또) 세계 최초 수소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수소차 보급도 전국 1위다. 수소경제를 위한 1000여개 기업과 연구계도 조성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밝힌 현장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명래 환경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송철호 울산시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울산시와 현대자동차·SK가스·S-OIL·두산·효성 등 14개 기업이 수소경제 관련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밝힌 후 전국 최대 수소를 생산 중인 덕양산업의 울산 제3공장을 방문했다. 덕양산업은 1964년 설립된 산업가스 공급 전문 중견기업이다. 덕양산업은 수소가스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덕양 울산공장을 방문한 후 울산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l

〈차량 대 사물간〉

5G 기반 V2X 기술로 트레일러 군집주행 현실화

현대차-LG U+ 상용차 자율주행 맞손

단독

LG유플러스와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자율주행 상용차 시장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협업으로 미래차 선점을 위해 5G 상용화를 맞은 만큼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통신사와 완성차 업체 간, 미래차 선점을 위한 이종산업 간 합종연횡이 봇물처럼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 시장은 개인 소비자 중심의 승용차보다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구매가 가능한 상용차를 중심으로 시장이 우선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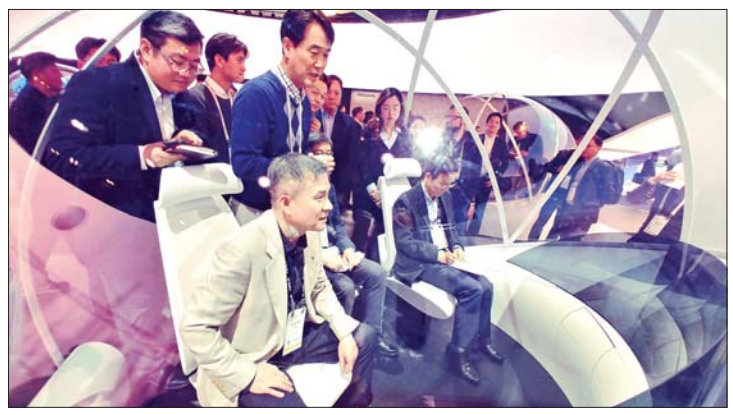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달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V2X(차량·사물 간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상용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V2X란, 차량과 주변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보행자, 차량과 인프라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의 5G 통신망을 활용해 LG전자가 개발한 자율주행 V2X 단말을 여러 대의 현대자동차에 부착해 군집 자율주행이 이뤄진다. 이번 협업으로 V2X 단말을 장착한 다수의 차량들이 서로 위치를 인지해 피해가거나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이 가능해지면, 물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현대차는 화물 운송용 대형 트레일러 자율주행 차량으로 약 40㎞ 구간의 의왕~인천 간 고속도로 자율주행에 성공한 바 있다.

LG 관계자는 "현대차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자동차끼리 서로 소통하며 달리는 군집 자율주행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 등 완성차 업체의 부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며 인사이트를 구하기도 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8일(현지시각)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19 노스홀에 위치한 현대차 전시부스를 방문, 둥근 코쿤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완성차 업체-통신사 간 미래차 선점 위해 합종연횡

상용차 중심 시장형성 예고 군집주행 땐 물류 효율성 ⬆

사업자 뿐 아니라 학계와도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 한양대학교자동차전자제어연구실(ACE Lab)과 함께 자사 5G망을 접목해 서울숲~강변북로~성수대교~올림픽대로~영동대교 인근 약 7㎞의 거리를 25분 동안 주행하며 자율주행차 실증에 성공하기도 했다.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 또한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이번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포함해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달부터 LG유플러스와 상용화 자율주행 기술을 진행하지만 특정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업체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통신사 별로 장점을 파악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현대모비스는 KT와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도 했다. KT는 이를 위해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 5G 통신망을 구축했다. 〈관련기사 6면〉

양사는 이번에 구축한 5G 통신망을 이용해 올 하반기까지 ▲차량-사물간 통신 기술(C-V2X: Cellular Vehicle to everything)과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벤츠와 자율주행차 기술 협력에 나서 개발 중인 단계"라며 "상용차와 관련해서는 추후 오픈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KT는 2017년부터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 관련 기술 협업을 시작해 지난해 평창올림픽 때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초정밀 지도 기업 '히어(HERE)'와 5G 자율주행·스마트시티 사업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제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죽스, 2차 전지 제조 설비사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손잡고 5G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향후 자율주행차는 미래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 리서치는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20년 225조원에서 2035년 10배에 가까운 217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5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5%는 자율주행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김나인 기자

ysw@metroseoul.co.kr

'공시가격 현실화' 임박… 세금폭탄 공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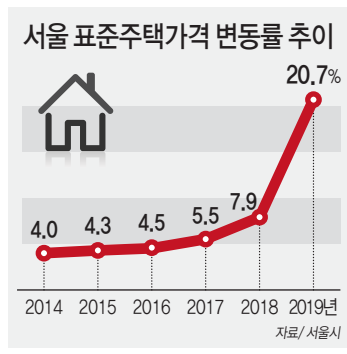
서울 표준주택가격 20% ⬆
강남구 상승률 43% 달할 듯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압박 카드인 '공시가격 현실화'가 임박했다.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가격이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임대료·월세 상승, 세금 부담 심화, 건강보험료 증가 등 각종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10.19%로 전년(5.51%)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한 서울 지역의 변동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서울의 표준주택가격은 20.70% 올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의 약 3배다. 서울의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은 2016년 5.73%, 2017년 5.53%, 2018년 7.92% 수준이었다.



서울 중 공시가격 오름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 지역은 강남구다. 강남구는 올해 평균 상승률만 42.8%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용산구 39.4%, 마포구 37.3%, 서초구 30.6%, 성동구 24.6%, 동작구 21.9%, 서대문구 19.2%, 중구 18.4% 등도 높은 오름폭을 보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3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북지역 5억원 이하 주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1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례로 성수동1가 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14억3000만원에서 2019년 37억9000만원으로 165% 오른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8억 3800만원이에서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86% 뛴다. 동작구 흑석동의 단독주택도 지난해 6억1100만원에서 올해 8억 7600만원으로 43.4%높아진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 420만 여 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 여 가구를 추려내 가격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1개 사회복지·행정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 이를 통해 산정되는 세금·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하다.

〈8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